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요약)

2023. 6.



금융위원회

목 차

I.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경과	1
II.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2
III. 최근 금융중심지 정책환경 분석	4
IV.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방향	6

I.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경과

◇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03년부터 금융중심지법 제정, 기본계획 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

① '03.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여 7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 1)자산운용업 육성, 2)금융시장 선진화, 3)특화 Initiative 확보, 4)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한국투자공사(KIC) 설립, 6)규제·감독체계 혁신, 7)경영·생활환경 개선

○ '07.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08.4월,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② '08년부터 '20년까지 5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추진

○ '08.8월,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 수립

*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자산운용시장 육성,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 '08.9월, 금감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

- '09.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 '11.9월,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 수립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 '14.10월,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

* 국제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금융산업 국제역량 제고, 국제적 금융인프라, 금융중심지 활성화

○ '17.10월,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7~'19) 수립

*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중심지 내실화

○ '20.5월,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2) 수립

* 금융산업의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추진

II.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1 잘된 점

◇ 국내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

□ 자본시장 관련 제도 선진화 및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발전

○ 주식 시가총액 및 상장회사 수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으며, 외국인 주식 보유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 주식시장 시가총액 : ('04년) 444조원 → (21년) 2,650조원
외국인 주식보유액 : ('04년) 180조원 → (21년) 785조원

○ 자본시장법 제정('07.8월), 헤지펀드 도입('11.12월), 초대형 IB 육성('16.8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역량 강화

□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금융제도 정비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데이터 3법 시행('20.8.5일)에 따라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및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바젤III 적용, 정리체계 및 K-IFRS 도입,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 확대 등 금융감독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

□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부산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금융중심지 전략을 지속 추진

○ 서울·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19년 이후 상승 추세

※ (서울) (19.9) 36위 → (20.9) 25위 → (21.9) 13위 → (22.9) 11위 → (23.3) 10위
(부산) (19.9) 43위 → (20.9) 40위 → (21.9) 33위 → (22.9) 29위 → (23.3) 37위

2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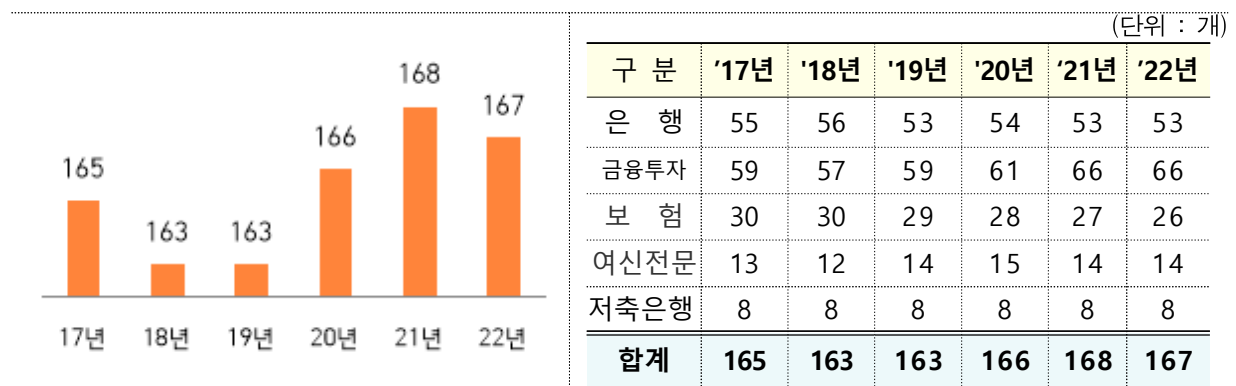
◇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정체되고 있으며,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

□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글로벌 영업전략 변화*, 디지털화 심화 등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정체 및 영업 축소

* 바클레이즈(英) : 아시아 6개국(대만,호주,말레이,인니,태국,한국) 철수

RBS(英) : 아시아 7개국(중국,홍콩,인니,말레이,인도,태국,한국) 철수

< 연도별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진입 현황 >



□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및 자산·이익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그 상대적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및 자산>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해외점포수(개)	396	407	431	436	435	447	466	490
해외점포자산(억달러)	1,034	1,131	1,572	1,790	2,157	2,438	2,451	2,715
당기순이익(백만달러)	493	657	934	1283	1,346	1,274	1,947	1,586

* 국내은행 총자산 중 해외점포가 차지하는 비중(%) :

('10) 4.0 → ('12) 4.2 → ('14) 4.8 → ('16) 5.1 → ('18) 5.1 → ('20) 6.0 → ('21) 6.7%

□ 서울·부산에 국내·외 금융회사가 입주하고 있으나, 금융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등 금융생태계 조성 및 외국계 지역본부 유치 등은 미흡

Ⅲ. 최근 금융중심지 정책환경 분석

1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 일부 전통적 중심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흥 금융중심지가 급부상하는 등 금융중심지간 경쟁구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

□ (전통적 중심지) 정치적·사회적 여건 변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일부 중심지의 경쟁력 하락

○ 런던은 브렉시트('16.6월) 이후 EU금융시장으로의 접근성 악화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

* 금융회사 43%(222개 중 95개)가 이전 또는 이전할 계획('21.2월 기준, Ernst Young)

○ 홍콩은 中 국가안전법 시행('20.6월)에 따른 우려, 엄격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대비 경쟁력 하락 평가

○ 도쿄는 거시경제 성과 부진 등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순위가 지속 하락

□ (신흥 중심지) 특정분야·지역의 발전에 기초한 특화형 중심지 부상

○ 샌프란시스코와 LA는 IT 및 미래첨단산업 발전, 우수한 인적 자원 등에 기반하여, 벤처캐피탈 및 핀테크 기업 등이 집중

○ 파리는 ESG투자를 법제화('15)하고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석탄 금융을 제한하며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중심지로 주목

○ 두바이는 금융특구 설립 등 국가주도 지원으로 중동권 금융허브로 자리매김

* 중동지역 도시의 국제금융센터 순위(GFCI) 변화

- 두바이 : ('11년) 36위 → ('23.3월) 22위(중동지역내 1위)

- 카타르 도하 : ('11년) 30위 (중동지역내 1위) → ('23.3월) 64위

2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 금융의 디지털화, 지속가능금융, 가상자산 등 달라진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이 금융중심지 정책의 화두로 등장

-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빅데이터·AI 등 비금융 신기술과의 융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
- **(지속가능금융)** 코로나19로 기후변화, 환경 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대되며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 확산
-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등 새로운 가상 자산이 등장하였으며, FTX 사태 등을 거치며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금융안정간 균형있는 제도화의 중요성이 강조

3 한국의 강점 · 약점 및 위협 · 기회요인

- **(강점)** 상대적으로 큰 경제·무역규모, IT산업 경쟁력, 풍부한 연금자산(세계3위) 등
- **(약점)** 언어·대륙법 체계, 미흡한 통화 국제화, 경쟁도시에 비해 높은 세 부담*, 경직적 노동시장 등
* 법인세 : 홍콩(16.5%), 싱가포르(17%), 한국(24%)
- **(기회)**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구도 변화, 문화적·국제적 위상 제고 등
- **(위협)** 홍콩·싱가포르의 주변국 금융중개형 모형 선점, 글로벌 금융사의 축소지향 경영전략,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 평가 및 시사점

- 한국의 약점은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속 제기된 사안
- IT 경쟁력 등 강점을 기초로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약점은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

IV.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1 금융중심지 정책 비전 · 체계도

비 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금융한국

중점전략

-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 혁신
- 글로벌 스탠다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시스템 구축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금융사 유치 지원

추진 과제

①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 금융회사 디지털 전환 지원
- 핀테크 지원 강화

②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 디지털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 외환제도 개선

③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 자본시장 경쟁·효율성 제고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

- 금융사 해외진출·투자 지원 강화
- 해외금융사 유치 지원
-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추진

대과제 ①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정비
 - 금융회사가 디지털화·빅블러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 현재는 금융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수업무 영위 및 자회사 출자가 가능
 -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는 규율체계 정립
- (금융의 디지털 전환 촉진)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화
 -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 등 금융회사의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
 -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지속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공,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 구축 등 내실화 추진
- (핀테크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의 지속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추진
 - 글로벌 진출 기조에 따른 민간 모험투자가 감소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 핀테크 기업에 법률·회계·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 추진 시 정보·인력 매칭 지원

◇ 디지털化, 지속가능금융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외환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 **(디지털 신산업 제도화)** 토큰증권,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 규율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증권거래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 가상자산은 이용자보호 필요성 및 글로벌 규제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규율체계 마련 추진
-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
 -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를 고도화하고, 테스트베드 운영, 빅데이터 확보 지원 등 AI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망분리·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율보안체제로 전환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글로벌 기준·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ESG 공시를 단계적 의무화
 - 다양한 ESG 지수를 개발하고, ESG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외환제도 개선)**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고, 과도한 외환거래 규제를 혁신
 -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에게도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사전신고제 등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초래하는 거래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

◇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정비하고 정보접근 환경 개선
 - 약 30년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통합 계좌* 활성화 및 장외거래 사전심사 완화 등 거래 편의성을 제고
 -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금융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및 기업의 영문공시 지원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저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절차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자본시장 경쟁·효율성 제고)**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및 대체거래소(ATS) 설립 추진
 - 투자자에게 유망 투자기회를, 혁신기업에게는 성장기회를 제공하도록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現 규제샌드박스) 제도화 추진
 - 대체거래소(ATS)를 설립을 통해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증권거래 인프라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연기금 등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 공모펀드 제도개선을 통해 간접·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사모펀드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지원
 -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를 확대하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경험을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

◇ 글로벌 금융강국 및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인바운드(Inbound) 및 아웃바운드(Outbound) 지원 전략,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등을 병행 추진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국내 금융사의 해외 영업기반 및 수익비중 확대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 금융위내 「금융 국제화 대응단」을 설치하여, 해외진출 및 현지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일괄 발굴 및 개선
 - 영업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진출 금융회사, 현지 금융당국 및 대사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해외 금융사 국내유치 지원) 외국계 금융회사·금융인의 경영·생활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노력 및 금융중심지 홍보를 강화
- (지역별 맞춤형 전략 추진) 서울, 부산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별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추진

서울 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핀테크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핀테크랩) 창업 7년 내 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제2서울핀테크랩) 창업 3년 내 초기기업 인큐베이팅 전담 · 디지털금융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市 창업 거점시설 연계 현장실무인력 양성 등 ·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감면,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핀테크기업 지원 등
부산 문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인프라 및 금융생태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FC 주변 금융권 데이터센터 구축, 부산형 스케일업 모펀드 조성 등 · 해양특화금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진흥공사 및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확대,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FC 3단계 공간('25년말 완공)에 디지털금융기업을 집적, 블록체인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민간주도형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 조성 등